

# 생태주의 윤리의식과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성 관계 연구

황 정 옥\*

## 목 차

Abstract

I. 서론

II. 생태의식의 윤리성과 무용

1. 생태의식의 윤리적 성격

2. 생태 윤리와 무용

III.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 목적과 방법

1. 도시화 사회에서의 커뮤니티댄스

2.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의 방식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cological ethics and the social participation of community dance

Hwang, Jeong-ok · Kyungso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community dance regarding social participation with its topic about the meaning of community dance in terms of social participation. The procedur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thical perspective of ecological consciousness and then suggest the intention and mode of participating community dance in the social environment urbanized after the industrialization.

From the aspects of the social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ecology such as codependence and interaction demand the ethical attitudes of consideration and embracement having intera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as prerequisites. The space where interaction and mutual communication are acknowledged can alter the aspects of a city into those of social space. It is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외래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공연예술전공 박사과정 수료  
논문투고일: 2014. 7. 20. 심사일: 2014. 8. 20. 게재확정일: 2014. 9. 5.

because the urbanization process still retains the problems of space where ideology that industrial society has formed as a physical condition exist.

Seen from this perspective, the social participation of community dance aims to pursue the public good through the practice of art to share the matters of time and space in social-cultural context. The ethical attitude of the public good gets to be formed through the social participation of community dance, that is, consideration and embracement, and it is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an alienated community as our problems and solve them.

The mode of social participation in community dance starts from facing the problems of an alienated community directly through the union of participants and the DA. At this time, the roles of dance are to connect the social relevance of dance experience, and the forms of dance suggest the techniques to express the matter of relevance in diverse ways. In other words, social relevance at the practice of dance in a community is to concretize the goals of planning community dance determined as a mode of social participation.

Accordingly, the dance experience of social participation works as a function to reach the ethical value of consideration and embracement, and acceptance and extension; thus, it becomes the practice of arts in ecological society that forms society that is symmetric.

**key words:** community dance, ecological consciousness,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pace

**주요어:** 커뮤니티댄스, 생태의식, 사회 참여, 사회적 공간

## I . 서론

생태주의는 자연과학에서 비롯된 개념이지만 사회, 경제, 교육을 걸쳐 학문들 간의 경계를 넘어 오늘 날 시대 의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계 안에서의 사회는 대칭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상호소통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생태주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는 구성원들의 만남과 의사소통 과정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한다. 사회적인 공간은 누구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덕으로서 선선의 가치를 요청하는 곳이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는 권력과 자본을 통해 한방향적인 질서와 규범적 틀을 만들었으며, 이와 같은 위계의 바깥에 존재하는 공동체는 소외되는 문제가 야기 되었다. 경제적, 정치적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관계에서도 공동체 소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동체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보편성의 기준이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산업화 과정은 개별적 공동체들의 실존 문화를 제어하는 결과

를 낳았다. 연출된 도시 공간은 체험하고 소비되어야 할 삶의 공간이 되었고 이때의 체험은 자율적인 것도 아니며 고유한 것도 아닌 오직 대중화, 평준화, 동질화의 가치에 의해 소비되어야 할 상품으로 변질되었다.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공동체 문화는 존중과 수용, 배려, 포용을 통해 상호 소통하는 관계의 공동체로 개선되어야 한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의 공동체는 역사의 시간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 산업사회의 합리성, 보편성- 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별공동체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지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오늘의 예술은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참여와 실천(제작)을 통해 인류의 공공선 public good을 추구한다. 이러한 의미체계에서 예술은 보편성의 위계의 문제에서 불합리한 입장에 있는 공동체의 문제에 주목해야만 한다.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 즉 사회적 쏠림 혹은 소멸 현상들을 어떻게 인식하고(논쟁의 기반) 또, 해결방안으로써 문제가 결국, 본질을 무엇으로 제시하고(기획 목적) 어떻게 실천할(무용의 역할과 형태) 것인가의 문제가 결국,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 방식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성 연구는 오늘날, 생태주의 윤리의식이라 할 수 있는 존중과 수용, 배려와 포용을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성의 기본 철학으로 보고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성을 연구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생태주의 윤리의식과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성 관계 탐구는 생태의식의 윤리성을 탐색하고 산업화이후 도시화 사회라 불리는 새로워진 사회 환경에서 생태적 윤리관을 기제로 한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 II . 생태의식의 윤리성과 무용

### 1. 생태의식의 윤리적 성격

Kante와 Hegel에 이르기 까지 우리는 이성 중심의 사유 체계를 갖추어 왔다. 사회와 역사의 관점은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닫힌 체계로 읽혀져 왔고 규정되었던 것이다. 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은 합리성<sup>1)</sup>이라는 가치로 모든 사태를 오직 이성으로만 판단하였다. 인간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짓는데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 이성이었지만 인간이 세상의 모든 존재 앞에서 있게 됨으로써 자연은 넘어서야 할 대상이 되었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 앞에 자

1) 근대 합리성

연과 개인, 힘없는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다.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개별적인 인간 또한 힘의 우위를 가진 공동체가 설정한 사회 제도와 규범을 따르도록 강요받아 왔던 것이다.

세상의 구조를 분석하고 문제 요인을 발견하는 데에는 부분이라는 요소로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 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의 관계를 대칭적으로 바라볼 때 문제 해결은 가능해진다. 결국 생태적 시각은 세상이 부분의 합이라는 인과적이고 기계론적인 환원주의가 아닌 전일주의(holistic)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과학에서부터 비롯된 복잡계(complex system)의 개념은 세계는 복잡하지만 그 안에는 일정한 질서의 모습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세상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이라는 질서의 모습<sup>2)</sup>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전자 단위로 인간과 사회를 말하는 사회생물학에서는 자연 도태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자연 도태<sup>3)</sup>라는 것은 어떤 종(種)이 번성하거나 사라지는 원인이 경쟁관계와 비교우위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개인이 사회에서 낙오되는 것 또한 삶의 당연한 모습이 된다. 그러나 다윈이 주장한 생존경쟁은 종의 개체 투쟁이 아닌 환경과의 투쟁이다. Huxley, T. H.는 자연 도태를 통한 진화와 윤리적 태도 사이에 필연적 연결이 존재할 수 없음을 선언하였다. 우주적인 과정에서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이 그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윤리적 관점에서의 “사회진화는 이 우주적 과정을 그 하나하나의 단계에서 저지하고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진화의 표지가 되는 선선은 무자비한 자기주장이 아니라 각자가 존중하고 더 나아가 상호부조 하는 것을 요구한다(김우창, 2014: 313 재인용).

인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실존적인 존재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당연한 명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도덕적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그 시작점이 다르다. 문화의 기능은 도덕이라는 가치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한때는 규범적인 도덕 - 보편성 - 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간이 동물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인격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교육과 예술은 인간의 행동을 요청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 합리

---

2) 생태계는 늘 살아 움직이면서 성장·발전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겉으로는 평온이 유지된 상태로 보이는 생태계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이다. 그러나 모두가 파멸로 치닫는 상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생태계를 더욱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 예견된 기작일 수도 있다(유명만, 2006: 31). 불교 철학에서 핵심인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는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로는 서로에게 의존과 공존의 관계를 가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모든 존재는 상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다.

3) 이후 자연도태는 한정된 국지적 현상일 뿐이고 우연성의 산물로서 생태계는 진화한다고 본다.

적 이성으로부터 예술은 이해하고 분석하는 대상이 되었고 예술 존재 방식과 형태를 규범화하고 양식화하였다. 따라서 예술은 권위적인 코드로 작용하게 되었다.

사람이 그를 에워싸는 물리적 환경 속에 개체로 투입되어 있다는 것은 윤리나 관습 이전에 인간 생존의 실질적 조건의 기본이다. 감각은 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은 하나의 인식의 순간으로부터 올려놓는 것이 우리의 물질적 상상력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칸트적 명제는 논리적 필연성이라기보다는 요청postulat이고 이 요청의 근거는 자신과 타자 그리고 모든 개체적인 존재에 대한 직관에서 나온다(김우창, 2014: 167).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은 자신의 선택적 판단의 행동의 가치들이 규합된 결과로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가치를 만들어 간다. 행동의 판단과 가치 규정은 사실과 대상 사이에 있는 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가 만들어내는 유추적 관계에서 비롯된다. 생태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행동의 판단과 가치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의 결과로서 자유를 확보하는 자기 경험으로써의 삶의 실천이자 책임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천의 중심에는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을 전제로 하는 대칭적인 관계 형성이라는 실천 의식이 담겨있다.

인간은 책임 있는 자유를 추구하는 자율성을 지니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한다. 인간의 성장은 스스로가 필요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며 필요는 성숙된 감각에 의한 감성 계발에 기초한다. 감성은 무용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임으로 개인이 세계와 관계 맺는 것이 관여한다(한혜리, 2013: 27). 세상의 다양한 사태들을 연결하고 조합하는 것은 인간의 감각으로부터 지각된 인지로서 감성이다. 모호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감성은 세상을 총합하고 연결 짓는 고리가 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담론의 범위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정부의 관심은 비교적 익명적인 개인의 몸을 통제하는 것으로부터 전체 인구의 몸을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Shilling, C., 임인숙 역, 2000: 118).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은 인간의 몸을 통제와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봤고 감성은 이성과 분리된 채로 인식되었다. 문화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요청에 의한 것이었던 것과 같이 교육 제도 또한 사회적 요청의 결과로 작용했다. Negri A.(1990)는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의 이행은 학교, 군대, 공장, 감독 등이 규범화 기체인 ‘규율사회’에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실천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된 규범들이 개개인에 내면화된 ‘통제사회’로의 이행이라고 본다. 따라서, 몸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인류의 역사는 인종, 젠더, 질병, 관습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시각을 형성했다. 그리고 몸을 통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판단의 감각이 결여된 채 소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세계와의 관계를 필요성으로 판단하는 자기의식을 형성하였고 다양한 매체들로부터 자신의 정신이 지배당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통제의 수단으로 혹은 소비의 형태로 형성된 사회는 힘의 우위를 점하는 지배자와 지배에 혼란을 겪는 집단으로 공동체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킨다. 이러한 관계에는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이 존재할 수 없다.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와 같이 보고자 하는 생태의식은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의 원리를 통해 대칭적인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윤리적 태도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윤리관이 우리의 의식과 실천에 나란히 할 때 근대성의 아래에 있는 산업사회의 자본주의 논의에서 발생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 2. 생태 윤리와 무용

김우창(2014)은 도덕성의 요청이 정치적 목표에 따라 변화하고 권력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도덕을 교육한다는 것은 부도덕이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고 보았다. 따라서 규범적인 도덕을 주입하는 것 보다 책임과 자유 아래 스스로 폭력성 즉 인격을 강압하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어떠한 형태이든 작은 도덕의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근대 사회가 배려하지 못했던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접근에 있어서 삶은 근원적인 문제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유 체계에 있어서 삶의 방식은 일반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현상의 표면에 안주하지 않고 실존의 차원에서 근원 즉, 본질에 문제에 다가서야 한다. 생태주의 사회에서 의식은 결국 나로부터 사물-세계-의 사물의 관계에서 본질의 문제를 주목하는 의식을 일깨움으로써 사회 변화의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행하는 지식을 요청하는 것이다.

생태주의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의 성격은 사회 체계로 본다면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을 전제로 한 배려와 포용, 공감, 존중, 수용, 확장이라는 핵심 가치로 생태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결국 이는 관찰, 몰입, 명상을 통해 개인, 공동체, 인류 더 나아가 우주 전체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체험 지식의 깊이와 변화를 주목한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적인 사유를 통해 형성된다. 행동-실천-함으로써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은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인 의미와 가치를 형성한다. 공공선의 추구는 윤리적 차원에서의 문제로 무용에서는 상상을 통해 배려, 포용, 공감, 수용,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직접 되어보는 표현 기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사유의 깊이 즉 의지와 정신의 힘이 요구된다.

인간의 의지와 정신의 힘은 사회 문제 이면에 있는 현상을 직시하고 열려있는 관계 망과 네트워킹하는 생태의식과 조우한다. 전체가 관계 망으로 선순환하며 상호작용하는 패턴으로 사회 구조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의식으로써 배려와 포용의 생태의식의 윤리적 가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는 공감으로 실현될 수 있다. 인간은 그물처럼 엮여 있는 관계 망 속에서 특정한 패턴을 식별해 내는 능력을 지녀야 현상의 문제의 본질을 인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식으로서의 삶의 과정은 맥락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어떠한 영역의 지식을 축적한다고 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다양한 경험의 과정의 총합인 삶의 통합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생태계에 대한 배려와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를 합리적인 형태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동물과의 결혼이라는 신화적 사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결혼에 본래 포함되어 있을 '미덕'을 끄집어내, 그것을 잘 다듬어서 일종의 예클로지 철학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中尺新一, 김옥희 역, 2003: 57).

상상력을 통한 공감은 결국 인간의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가능해 지는 것으로 필요에 의한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의지를 수반한다. 인간의 의지는 판단력을 동반한 감정을 요인으로 함으로 통합적 지식과 사고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통합성은 무용의 인지 요인인 감성과 구성요소인 상상력, 창의력 이 세 가지 요인이 구성 원리로 작용한다(한혜리, 2012: 47). 항상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은 자신을 발명하며 이는 인간의 의지로부터 나오는 실천 의지로부터 비롯된다.

인간은 그 어떤 뒷받침도,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인간을 발명하도록 선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Sartre, J. P., 박정태 역, 2012: 45).

오늘 날 시대 이데올로기인 생태주의는 인류의 즉각적인 만족이나 무자비한 자기주장인 아닌 상호존중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 관계 형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관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가변적이고 다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 본다면 윤리적, 도덕적 태도는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는 실천 의지가 윤리적 태도이며 무용에서는 커뮤니티댄스가 이와 같은 실천을 전제로 한 연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 Ⅲ.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 목적과 방법

#### 1. 도시화 사회에서의 커뮤니티댄스

현 시대는 아마도 공간의 시대일 것이다. 우리는 동시성의 시대, 병렬의 시대, 가까운 것과 먼 것의 시대, 인접성의 시대, 분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내가 보기에 우리는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거대한 생명체로서 보다는, 여러 지점을 연결하고 그 실타래를 교차시키는 네트워크로서 경험하는 시기에 있다. 어쩌면 오늘 날 논쟁을 자극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시간의 경건한 후손들과 공간의 열렬한 거주자들 사이에서 펼쳐진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Foucault, M., 이상길 역, 2014: 41).

커뮤니티댄스 연구는 사회 관심social concern으로부터 시작된다. 산업사회 구조에서는 자아상, 건강, 그룹 통합의 역할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 부여, 자아 친밀감, 진정한 자아와의 상호작용, 만족감, 성취감, 소속감이 개인과 개인들의 공동체에 안정감을 제공<sup>4)</sup>할 것을 목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이는 사회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문제 해결로서 커뮤니티댄스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 참여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사회 변화에 따라 중첩되고 병치되면서 변화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구와 실천의 방향 또한 변화한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는 사회 참여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인류가 개선하여야 할 방법을 탐색한다.

“국지화된 공간espace de localisation에서 연장l'etendue으로 변화한 인류의 역사의 끝자락에는 배치emplacement가 우리의 공간을 점하고 있다. 대립되는 공간으로 점철되었던 시대에는 모든 것들이 국지화의 현상이었다면 기존의 이와 같은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지점들이나 요소들 사이의 인접 관계”(Foucault, M., 이상길 역, 2014: 43)로서 세계는 형성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생태주의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는 대립되는 것 - 위계의 관계 - 들이 존재한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여가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문화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 등의 대립이 사회 현상인 것이다. 대립이 지속되는 생태주의 사회에서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문화적 문제들에 주목한다.

산업사회 이후 도시는 삶의 공간이 되었다. 많은 인구가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이동되

---

4) 한국무용교육원(2012)에서 재인용.

8 생태주의 윤리의식과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성 관계 연구



있고 지금도 도시로 이동하고 있다. 산업 단계에서 도시 단계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는 자본주의가 존재한다. 자본주의는 도시의 공간을 체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도시 공간에 실존하는 사람은 사용가치<sup>5)</sup>로 도시 공간을 전유한다. 도시적인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와 대화로 형성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sup>social space</sup>인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힘은 도시 공간을 교환 가치로 추상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들의 목표는 공간을 동질화, 평준화의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윤추구를 위해 도시를 재개발하거나 체험 공간을 연출하는 것이다. 여전히 산업사회 이데올로기가 도시 공간을 점유하고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의해 도시가 구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도시는 산업 사회가 낳은 시장화, 산업화라는 시간적 이데올로기와 이와 같은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회의 공간적 문제가 배치된다.

도시성은 다양성, 관용, 문화 밀도 같은 사회적 특징을 가진 개방된 도시 공간<sup>6)</sup>으로 이질성, 상호작용, 익명성 같은 특징들이 도시성의 토대<sup>7)</sup>를 이룬다.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개방적이다. 서로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시에 자본과 권력의 힘이 가해지면 도시성의 성격은 와해된다.

새로운 도시성<sup>neue urbanität</sup>은 서로 단절된 부유한 자들의 배타적 도시와 외각으로 쫓겨난 특권 없는 자들의 격리된 도시 공간이다(Lewitzky, U., 난나 최현주 역, 2013: 50).

새로운 도시는 체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연출된 공간을 소비하도록 한다. 상품을 소비하듯 공간과 삶을 체험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상품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에 의해 특정한 생활 방식이나 취향을 요구받게 된다. 도시는 실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공간이 아니라 상품화된 이미지를 체험하는 교환의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교환 가치로 만들어진 추상적 공간은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공간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통적이며 비상업적일 때 도시는 도시적인 모습을 지니기 때문이다.

오늘 날 도시의 모습은 시장화 정책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도시 규모가 거대해 지면서 교외 지역이 발전되고 교외에 인구가 집중된다. 그러나 자본을 지닌 교외 거주자들은

5) Lefebvre, H은 도시의 현상을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사회적 공간과 추상적 공간으로 설명한다.

6) Feldtkeller, A의 개념

7) Siebel, W의 개념

그들을 위해 도심 공간을 소비하고 체험하는 장소로 탈바꿈 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도시 서비스 이미지를 강화하여 대규모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투자자로 기업을 유치한다.

도심 영역의 재도시화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을 초래했다. 재개발은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상업시설이 만들거나 고소득층을 위한 주거지를 건설한다. 따라서 원래 거주하고 있던 거주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와 같은 도시화 현상에서 예술은 미화되고 상품화되는 도시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실천과 제작을 추구한다. 실존하고 있는 거주자 - 주민 - 들이 대안적인 도시를 구상할 수 있는 개입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Lefebvre, H.(1996)은 “도시의 서비스 중에 예술을 위해 지운다는 것이 예술 작품으로 도시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현, 미화, 장식은 버리고 예술은 사회적 차원의 실천과 제작이 될 수 있다. 스타일과 작품으로, 즉 축제 안에서 전용된 기념물과 공간의 의미로 회귀함으로써 예술은 ‘황홀한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술의 미래는 예술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적인 것이다”(Lewitzky, U., 난나 최현주 역, 2013: 109 재인용)라고 하였다.

교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로 도시를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물리적, 건축적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 아비투스(habitus)의 재생산을 통하여 가능하다. 특정한 집단에 의해 형성된 건축된 도시 공간은 공간의 사용과 인식을 지배하고 공간적 실천까지 강요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물리적 공간은 사회적 구조이기에 아비투스의 재생산에 의해 극복 될 수 있는 것이다.

공공의 이익으로 포장된 새로운 도시성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매커니즘의 개입이 요구된다. 문화와 예술은 체험과 소비의 공간으로 도시를 점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미지와 상징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예술은 능력이 자본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의해 새로운 도시성을 만드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예술은 사회적 참여로서 상상력의 힘을 발휘한다. 예술 실천이 예술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과 공동체는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화와 상업화에 따라 발전된 도시의 파편적인 공간에서 혼란을 겪는다. 혼란의 극복을 위해 예술은 일반인들을 예술 활동에 참여시키고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외부 환경이 아닌 공동체 자체에 주목한다.

즉, 커뮤니티댄스는 새로운 도시성의 문제에서 표류하고 있는 소외라는 비대칭적인 위계를 와해시키기 위해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이다. 도시화 사회에서 커뮤니티댄스는

산업 사회 이데올로기로부터 개인적 의식을 일깨워 위계화, 정형화(도시화) 되고 있는 산업도시를 상상력을 통해 대안적 도시 모습을 구상하고 실존적인 행복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의 도시 사회인을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 2.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의 방식

개별적인 인간의 관심사나 가치관이 여러 차원에서 서로 상충하는 만큼 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인간들은 언제나 서로 간의 갈등관계로 얽혀있다.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공동체의 집단적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잠시 접어 두고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목적을 위해 다른 구성원들과 싸워야 한다 (박이문, 2014: 37).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의 목적은 파편화된 도시 사회 구조에서 소외된 일반인들이 예술 참여participation의 물리적 조건을 넘어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예술 실천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동체와 접촉을 통한 함께 하는 과정으로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소통은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특성을 지닌다. 오늘 시대에 사회적 만남이라는 소통은 다양성과 이질성 사이에서 서로 다른 차이의 문제와 수용의 관점으로 배려와 포용, 수용과 확장으로써 문화 변용acculturation mutuelle을 통해 대안적인 도시 공간 - 사회 구조 - 을 재생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환원될 수 없으며 절대로 중첩될 수 없는 배치들을 규정하는 관계들의 총체 속에서 살고 있다(Foucault, M., 이상길 역, 2014: 46). 시간의 유산으로써 영원성을 전제로 하는 절대적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공간을 재구성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에서의 논쟁의 기반 즉 사회적 논쟁, 사회적 문제issue를 인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사회 참여이다.

커뮤니티댄스는 공동체와 예술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일상, 공간, 지식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과 직접 대면한다. 문화적 위계의 문제, 사회적 진실의 문제, 보편성의 문제와 같은 사회적 논쟁의 쟁점들은 다른 지점들, 즉 개별적이고 타자적인 것을 이해함으로써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고 논리적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즉 공감과 공유로써 일반인들의 예술 참여의 가치가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외와 위계로부터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 현상과 문제는 구체적인 공동체

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사회적 맥락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표면적인 공동체 문제 자체를 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단순히 소비적 체험으로 작용할 뿐이다. 문제가 발생하게 된 본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의식하지 못함으로써 물리적 조건인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커뮤니티댄스의 예술 참여 활동은 참여자들이 Dance Animateur(이하 DA로 표기)와 함께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DA는 참여자들의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한다. 공동체의 문제에 함께 위치하여 공동체와 연대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고 의식의 전환을 공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무용의 역할은 무용 체험의 사회적 관련성을 연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을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표현은 사회적 문제와 대면하여 자신의 문제 의식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참여로써 사회 문제를 자기 고유의 문제(실존적 삶)로 인식하고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실천할 때 문화 재생산이 가능해지므로 커뮤니티댄스는 물리적 참여나 재현, 미화가 아닌 사회적 관련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에서의 무용의 역할과 형태는 사회 참여 방식으로 결정된 커뮤니티댄스의 기획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예술의 사회 참여 방식은 공공의 공간으로 즉 일상의 공간으로 침투하는 과정의 변화를 통해 실천되었다. 사회적 문제와 논쟁을 담은 예술 작품으로 일상의 공간을 점유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를 전유하는 의식의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술작품으로 문제를 제시한다는 것은 모더니티 시대의 예술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참여의 과정으로 일반인들의 예술적 경험을 촉진하게 되었다.

체험과 소비로 덮여진 공간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존적 깊이의 문제로 자각하는 순간 문화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문화 변화를 통해 대칭적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공동체성은 다름과 차이 속에서 동일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다양성과 상대성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에 개별적인 공동체의 문화 또한 존중되고 수용되어야 한다는 배려와 포용의 윤리관이 따른다.

개인과 공동체 환경으로서 개인과 세계의 관계는 언제나 수평적인 구조를 지녀야 한다. 각각의 문화는 그 존재 자체로 의미를 지녀야 하는 것이 생태적 삶을 살아가는 태도이다. 특정한 집단에 의해 형성된 현상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커뮤니티댄스 연구에 있어 사회 참여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다. 물리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세계(환경)에서 문제 현상의 주체를 문제화하는 사회 참여는 예술 실천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유

한 위치를 되찾는데 플러스적인 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사회 구조의 본질은 의사소통이며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끊임없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환경)와의 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대립과 위계의 문제는 개별적인 공동체 간의 저항의 문제가 아닌 환경(세계)과의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화는 타인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Gadamer, H. G. 손승남 역, 2004: 73).

체험은 그 표현에서 자극과 저항, 압력, 고무되는 것에 대한 지각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즐거움의 지각 등의 관계를 통해 특징지을 수 있다(Dilthey, W, 이한우 역, 2002: 78).

표현은 하나의 체험을 특징짓는다. 그리고 표현을 통해 개체는 여타의 것들과 대화한다.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은 대화를 위한 소통의 과정이므로 자신의 존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대상-세계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위치를 확인하고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의 참여의 경험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접근이어야 하므로 존재의 깊은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물음<sup>8)</sup>과 명상<sup>9)</sup>을 통해 세계 밖과 소통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문제로 의식의 전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회 참여의 실천은 구체적인 현상을 문제화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문제 본질에 접근한다.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의 문제를 밝혀내고 인식할 수 있는 경로로서 ‘그들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이끄는 인식의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체험 즉 경험은 예술의 직접 경험으로서 사회와 환경 감각 너머에 있는 본질적 현상에 다가설 수 있다. 공간의 시대에서 지각되는 지식과 정보는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직접 경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인식과정을 통해서 체득되는 것이다. 무용의 본성이 주관성이라면 본질은 작용이다. 그리고 작용은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무용의 본질과 대립되는 것은 소외alienation이다. 무용이 세계(환경)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한 참여인지 그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면 무용은 세계에 없는 것과 같다(한혜리, 2014: 66).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는 무용이 대상과 마주하는 가운데 소통을 전제로 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반성reflection을 통한 수신修

8) 자신의 의식의 질서를 찾는 과정이다.

9) Rousseau, J.J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응시해보는 것으로 설명(中尺新一, 2002: 99).

身<sup>10)</sup>으로 통한다.

커뮤니티댄스의 상대성, 대칭성, 형평성equality의 원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 뿐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한편 행위들의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공유된 가치를 만들어하는 공공선에 작용한다.

사회 참여 목적은 세계와 직접 소통하는 예술적 실천으로 비대칭적인 사회 구조가 형성한 사회적 현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의식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예술 활동 체험이 자신의 삶과 통합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공공선을 만드는 실천인 것이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 방법은 보편성으로 오인되는 물리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참여자와 DA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의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접촉하고 상상력을 통해 세계를 변경하고 유지하려는 문화 재생산을 도출해야 한다. 참여자의 경험은 사회적 관련성이 있는 표현 기술로 내용이 구조화되어야 하므로 무용의 역할은 일반적이거나 일방향적일 수 없으며 대상별 혹은 문제에 따라 실행의 목적이 공유되고 구조화되어야 한다.

사회 참여 실천은 배려, 포용, 수용, 존중과 같은 입장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의 의식을 지니는 능력을 요구함으로써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성은 배려와 포용의 의미와 가치로 규정된다.

## IV. 결론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 의미를 주제로 생태의식과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성의 관계를 탐색한 본 연구는 생태의식의 윤리적 관점을 생태윤리로 개념화하고 산업화 이후 도시화 사회에서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의 목적과 방법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생태주의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성은 사회 체계에서 본다면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을 전제로 한 배려와 포용의 윤리적 태도를 요구한다. 상호작용과 상호소통이 인정되는 공간은 사회적 공간으로 삶의 공간-도시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도시화의 과정은

---

10) 方朝暉 (2006)는 이를 존심, 양심, 양성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존심은 구체적인 심리를 다스리는 의지력과 다짐이 필요(단기적인 시간)하며 양심은 건전한 마음을 키우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므로 세심함과 실천을 필요(장기적인 시간)로 한다고 보고 있음

산업사회가 형성한 물리적 조건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공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윤리적 관점에서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사회적·문화적 맥락으로 공유하는 예술 실천을 통해 공공선을 추구한다. 공공선의 윤리적 태도는 배려와 포용이라는 커뮤니티댄스의 사회 참여성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커뮤니티댄스 사회 참여의 방법은 참여자와 DA의 연대를 통해 소외된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공동체 문제에 접촉하는 것은 문제 현상의 주체를 문제화 하는 사회 참여를 통해 문화 변용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참여를 통한 무용의 역할은 무용 체험이 공동체 의식과 사회를 연결하는 것으로 결국, 커뮤니티댄스의 사회적 관련성은 사회 참여 방식으로 결정된 커뮤니티댄스의 기획 목적을 구체화하는 것에서 제시된다.

따라서 사회 참여의 커뮤니티댄스는 배려와 포용, 수용과 확장이라는 생태 윤리적 가치에 도달하는 기능으로 작용하며 대칭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생태주의 윤리의식에서 비롯된 예술적 실천이 된다.

---

## 참고문헌

- 김우창(2014), **깊은 마음의 생태학**, 김영사.
- 김화숙 외(2012), **Community dance**, 한학문화.
- 박이문(2014), **왜 인간은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가**, 소나무.
- 유영만(2006), **지식생태학**, 삼성경제연구소.
- 한혜리(2012), “무용교육의 기본”, **무용교육론**, 한학문화.
- \_\_\_\_\_ (2014), “무용 체험과 인식과의 관계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제 25집 2호**, 59-72.
- 方朝暉(2006), **儒家修身九泐**, 박찬철(역, 2014), **나를 지켜낸다는 것**, 위즈덤하우스.
- Csikszentmihalyi, M(1990), *Flow*, 최인수(역, 2004), **몰입**, 한울림.
- Dilthey, W, 이한우(역, 2002),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 Foucault M.(1994), *Les Hétérotopie*, 이상길(역, 2014), **헤테로토피아**, 문학과 지성사.
- Gadamer, H, G.(2000), *Erziehung ist sich erziehen*, 손승남(역, 2004), **교육은 자기 교육이다**, 동문선.
- Lewitzky, U.(2005), *Kunst für alle?*, 난나 최현주(역, 2013), **모두를 위한 예술?**, 두성북스.
- Negri. A(1990), *Art et Multitude*, 심세광(역, 2010), **예술과 다중**, 갈무리.

- Sarte, J. P.(1996), *L'existentialisme est un humanisme*, 박정태(역, 2012),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이학사.
- Silling, C.(1994), *The body and social theory*, 임인숙(역, 2000), **몸의 사회학**, 나남출판.
- 中尺新一(2002), *Kuma kara ou e*, 김옥희(역, 2003), **꿈에서 왕으로**, 동아시아.